

오늘의 주요기사

2019. 10. 14 (월)

인쇄 면수	제목	언론사	카테고리	면수
1	지역관광개발패러다임 '관광도시'	전라일보	오피니언	015
2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호주제 역사 연구총서 발간	전민일보	사람	015
3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가계계승법제 역사적 탐구' 발간	삼남일보	종합	002
4	전주대'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발간	호남제일신문	경제·교육	005
5	전주대 전통의 중압 호주제를 말하다	전북연합신문	교육	004
6	전주대, 연구총서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발간	전북금강일보	문화	012
7	우리나라 제사 의미 탐구한다	전주매일	교육·문화	012
8	전주대 LINC+사업단,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 세미나 개최	전북일보	사람	013
9	전주대 LINC 사업단 새만금 재생에너지 세미나	전북연합신문	교육	004
10	전주대 LINC+사업단 신재생 미래 에너지 인력양성 앞장	삼남일보	종합	002

전 라 포럼 ▶▶▶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지역관광개발 패러다임 ‘관광도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적 불균형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미래 한국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최선의 선택 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 목적지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잠재력 있는 관광객을 관광지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국가관광 진흥전략회의를 거쳐 기차지차단체 기준 총예산 400억 규모의 지역관광거점 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 집행할 계획에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치 확대를 위한 수용태세 정비 및 지역관광 콘텐츠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방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전략거점 및 지방거점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도 EU 전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모델로 실행한 EDEN 프로젝트는 매년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우수 대상을 선정,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8년 시작된 ‘유럽의 스마트 관광 수도’를 통해 ICT 기반기술을 토대로 관광 상품, 서비스, 공간 경험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관광부문 지역관광 정책과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핵심 관광지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는 지역주도형 관광 개발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관광 개발을 통해 침체된 관광지 혹은 자원과 유휴 공간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립적 관광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예산은 기초지자체 기준 5년간 총 200억의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분권시대 지역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는 지역 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

는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인 예산을 받는 제도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관광지원화 하는 관광 자원개발 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연계협력형 지역계획모델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지방도시권 지역거점 조성사업, 감소 도시권육성사업, 문화도시사업 등의 지역개발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관광 도시를 목표로 하여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객을 지역으로 오게 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별화된 관광매력요소를 발굴·육성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이 창의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관광 거점도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관광거점사업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는 지역관광의 거점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교통·숙박·안내 개선사업과 지역의 속성에 부합하는 관광 요소의 발굴을 통해 지역관광콘텐츠 매력강화를 통한 지역관광경쟁력 강화, 지역관광생태계구축 지원 등 위한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도시 관광에 경쟁력 강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 거점도시의 브랜딩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마케팅 지원정책 역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은 기존의 관광 자원개발사업과 달리 관광거점도시 관리와 체계적 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많은 관광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거점관광 도시 내 관광관련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효과를 피하고 기존 관광개발사업과는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과 관광거점도시 맞춤형 관광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확대비율: 100%

전민일보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15면 사람 10.0 x 14.3c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호주제 역사 연구총서 발간

지역사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연구총서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을 발간했다.

이번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는 전주대 HK+연구단 공동연구원 정금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 결과로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다섯 번째 연구총서이다. 이 책은 정금식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온 논문집을 모은 것으로 호주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다.

책은 서장과 결장 그리고 4부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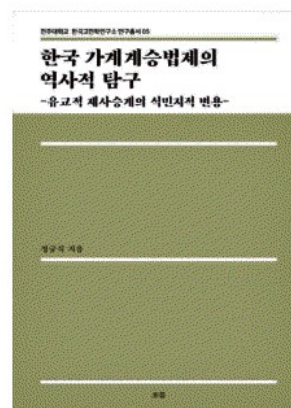
제1부 '역사적 연원'에서는 거시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계계승-제사승계-법제를 다루었다. 근현대 호주제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으로 이를 통해 가계계승법제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제2부 '가계계승'에서는 변례(變禮)인 양자(養子)가 양가(養家)와 생가를 함께 계승하는 '생양가봉사' 호주제의 큰 흐름을 기술하고, 또 직접 관련이 있는 종중(宗中)의 성격을 분석했다.

제3부 '제사와 재산의 승계'에서는 제사승계와 관련된 재산 분쟁을 검토한 글을 모았다.

제4부 '여성의 지위'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기까지 여성의 호주승계 실상과 식민지의 변천 그리고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다룬 글로 묶었다.

이재봉기자



확대비율: 100%

삼남일보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02

면 종합 6.1 x 22.3c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가계계승법제 역사적 탐구' 발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을 발간했다.

13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는 전주대 HK+연구단 공동연구원 정금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 결과로,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다섯 번째 연구총서다.

이 책은 정금식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온 논문집을 모은 것으로 호주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다.

정 교수는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중압, 그중에서도 제사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 출발은 제사의 시작인 상례에서의 행위규제였으며, 조선 초기 제사승계법제로 이어졌다.

이후 조선시대에서 근대, 현대의 제사승계법제까지 연구하며, 이번 저서를 통해 조선시대와 근현대를 아우르는 삼부작의 종착점을 찍었다.

책은 서장과 결장 그리고 4부로 이뤄졌다. 제1부 '역사적 연원'에서는 거시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계계승-제사승계-법제를 다뤘다. 근현대 호주제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으로 이를 통해 가계계승법제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제2부 '가계계승'에서는 변례(變禮)인 양자(養子)가 양가(養家)와 생가를 함께 계승하는 '생양가봉사' 호주제의 큰 흐름을 기술하고, 또 직접 관련이 있는 종중(宗中)의 성격을 분석했다.

또 제사승계와 관련된 재산분쟁을 검토한 글을 엮은 '제사와 재산의 승계'는 제3부에 실었다.

제4부 '여성의 지위'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기까지 여성의 호주승계 실상과 식민지의 변천 그리고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다룬 글로 묶었다.

/정해은 기자

확대비율: 100%

호남제일신문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05면 경제·교육 19.1 x 11.3cm

전주대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발간

조선시대부터 근현대 아우르는 제사승계법제 연구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 11일 연구총서『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을 발간한다.

이번『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는 전주대 HK+연구단 공동연구원 정금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 결과로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다섯 번째 연구총서이다.

이 책은 정금식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온 논문집을 모은 것으로 호주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다.

정 교수는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중압', 그중에서도 제사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 출발은 제사의 시작인 상례에서의 행위규제였으며 '조선 초기

제사승계법제'로 이어졌다.

이후 조선시대에서 근대, 현대의 제사승계법제까지 연구하며 이번 저서를 통해 조선시대, 근현대를 아우르는 삼부작의 종착점을 찍었다.

책은 서장과 결장 그리고 4부로 이뤄졌다.

제1부 '역사적 연원'에서는 거시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계계승-제사승계-법제를 다루었다.

근현대 호주제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으로 이를 통해 가계계승법제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제2부 '가계계승'에서는 변례(變禮)인 양자(養子)가 양가(養家)와 생가를

함께 계승하는 '생양가봉사' 호주제의 큰 흐름을 기술하고 또 직접 관련이 있는 종중(宗中)의 성격을 분석했다.

제3부 '제사와 재산의 승계'에서는 제사승계와 관련된 재산분쟁을 검토한 글을 모았다.

제4부 '여성의 지위'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기까지 여성의 호주승계 실상과 식민지의 변천 그리고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다룬 글로 묶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연구총서를 발행해 왔으며 그동안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사상·종교(Ⅰ·Ⅱ)',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지역공동체 재편(Ⅰ·Ⅱ)'을 연구총서로 발간해 왔다.

/김지애 기자

확대비율: 100%

전북연합신문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04면 교육 23.8 x 8.2cm

전주대 전통의 중압 호주제를 말하다

정금식 교수 연구총서 '한국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발간, 제사의 의미 주목 변천·역사성 기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한국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을 발간한다.

이번 '한국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는 전주대 HK+연구단 공동연구원 정금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 결과

로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다섯 번째 연구총서이다.

이 책은 정금식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온 논문집을 모은 것으로 호주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다. 정 교수는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중압', 그중에서도 제사의 의미를 탐구했다.

책은 서장과 결장 그리고 4부로 이루어졌다. 제1부 '역사적 연원'에서는 거시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계계승-제사승계-법제를 다루었다. 근현대 호주제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으로 이를 통해 가계계승법제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제2

부 '가계계승'에서는 변례(變禮)인 양자(養子)가 양가(養家)와 생가를 함께 계승하는 '생양가봉사' 호주제의 큰 흐름을 기술하고, 또 직접 관련이 있는 종중(宗中)의 성격을 분석했다.

/김유신 기자
yousin0828@naver.com

확대비율: 100%

전북금강일보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12면 문화 18.7 x 14.3cm

전주대, 연구총서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발간

제사 의미 탐구... 조선시대~현대 제사승계법제 연구

지역사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주 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지난 11일 연구 총서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을 발간했다.

이번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는 전주대 HK+연구단 공동연구원 정금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 결과로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다섯 번째 연구총서이다.

이 책은 정금식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온 논문집을 모은 것으로 호주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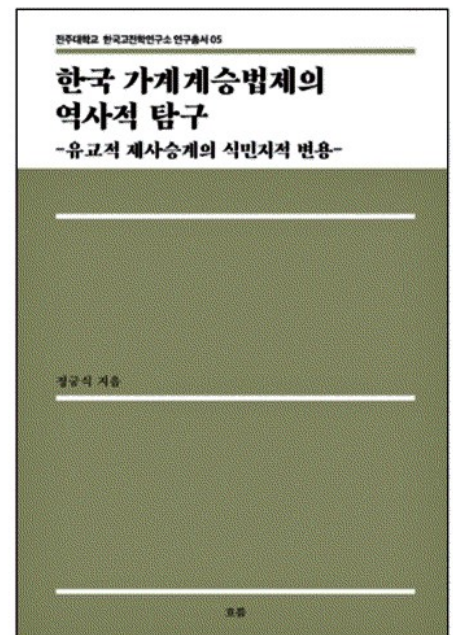
정 교수는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중압’, 그중에서도 제사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 출발은 제사의 시작인 상례에서의 행위규제였으며 ‘조선 초기 제사승계법제’로 이어졌다.

이후 조선시대에서 근대, 현대의 제사승계법제까지 연구하며 이번 저서를 통해 조선시대, 근현대를 아우르는 삼부작

의 종착점을 찍었다.

책은 서장과 결장 그리고 4부로 이뤄졌다. 제1부 ‘역사적 연원’에서는 거시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계계승-제사승계-법제를 다뤘다. 근현대 호주제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으로 이를 통해 가계계승법제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제2부 ‘가계계승’에서는 변례(變禮)인 양자(養子)가 양가(養家)와 생가를 함께 계승하는 ‘생양가봉사’ 호주제의 큰 흐름을 기술하고, 또 직접 관련이 있는 종중(宗中)의 성격을 분석했다. 제3부 ‘제사와 재산의 승계’에서는 제사승계와 관련된 재산분쟁을 검토한 글을 모았다. 제4부 ‘여성의 지위’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기까지 여성의 호주승계 실상과 식민지의 변천 그리고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다룬 글로 묶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연구총서를 발행해 왔으며 그동안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전주대 연구총서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표지.

이데올로기-사상-종교(I·II)’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지역공동체 재편(I·II)’을 연구총서로 발간해 왔다. /기동취재부 gkg8@dumnet

우리나라 제사 의미 탐구한다

전주대, 연구총서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발간

지역사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지난 11일, 연구총서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을 발간했다.

이번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는 전주대 HK+연구단 공동연구원 정금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 결과로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다섯 번째 연구총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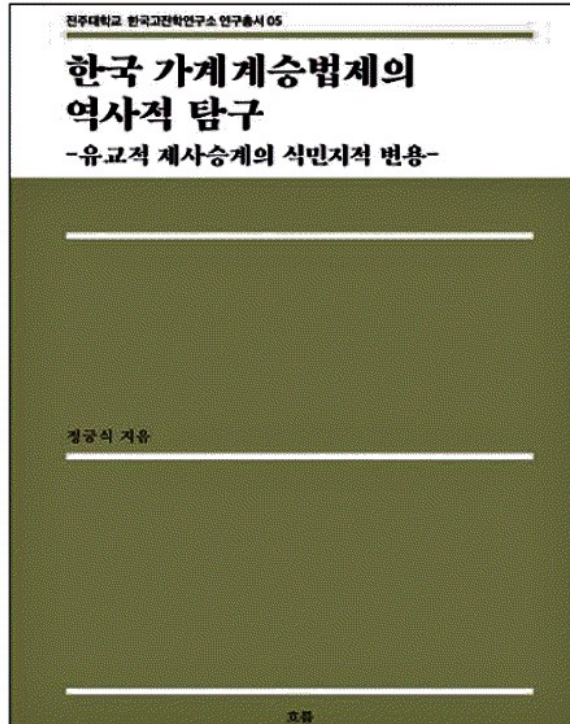
이 책은 정금식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온 논문집을 모은 것으로 호주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다. 정 교수는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중압', 그중에서도 제사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 출발은 제사의 시작인 상례에서의 행위규제였으며, '조선 초기 제사승계법제'로 이어졌다. 이후 조선시대에서 근대, 현대의 제사승계법제까지 연구하며, 이번 저서를 통해 조선시대, 근현대를 아우르는 삼부작의 종착점을 찍었다.

책은 서장과 결장 그리고 4부로 이루어졌다. 제1부 '역사적 연원'에서는 거시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계계승-제사승계-법제를 다루었다. 근현대 호주제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으로 이를 통해 가계계승법제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제2부 '가계계승'에서는 변례(變禮)인 양자(養子)가 양가(養家)와 생가를 함께 계승하는 '생양가봉사' 호주제의 큰 흐름을 기술하

고, 또 직접 관련이 있는 종중(宗中)의 성격을 분석했다.

제3부 '제사와 재산의 승계'에서는 제사승계와 관련된 재산분쟁을 검토한 글을 모았다. 제4부 '여성의 지위'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기까지 여성의 호주승계 실상과 식민지의 변천 그리고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다룬 글로 묶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연구총서를 발행해 왔으며, 그동안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사상·종교(I·II)',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지역공동체 재편(I·II)'을 연구총서로 발간해 왔다. /장은성 기자



확대비율: 100%

全北日報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13면 사람 12.2 x 9.4cm

전주대 LINC+사업단,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 세미나 개최

전주대(총장 이호인)와 전주대 LINC+사업단이 지난 11일 대학 예술관에서 '2019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방안 모색, 개발제품의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대규모 종합 실증 단지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내 혁신기관 관계자와 전북중소벤처리더스 포럼 회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

원 새만금실증단지추진단 방기성 단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단지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양대 원장묵 센터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Power-to-Gas 전략 구축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새만금 단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이어졌다.

전주대 LINC+사업단장 주송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실증단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학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분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확대비율: 100%

전북연합신문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04

면 교육 5.8 x 20.2cm

전주대 LINC+사업단

새만금 재생에너지 세미나

전주대는 LINC+사업단 ICC활성화의 일환으로 '2019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11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라북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방안 모색, 개발제품의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대규모 종합 실증 단지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내 혁신기관 관계자와 전북중소벤처리더스 포럼 회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새만금실증단지추진단 방기성 단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실증단지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양대 원장묵 센터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Power-to-Gas 전략 구축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 후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도 진행되어 새만금 단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이를 위해 대학이 나아갈 방향 등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 LINC+사업단장 주송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실증단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학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분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확대비율: 100%

삼남일보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02

면 종합 6.2 x 13.6cm

전주대 LINC+사업단 신재생 미래 에너지 인력양성 앞장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 교수)은 11일 예술관 리사이클홀에서 도내 혁신기관 관계자 및 전북중소벤처리더스 포럼 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전주대 LINC+사업단의 ICC(Industrial Collaboration Center) 활성화 일환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방안 모색, 개발제품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대규모 종합 실증 단지 구축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새만금실증단지추진단 방기성 단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실증단지 구축방안'을, 한양대 원장묵 센터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Power-to-Gas 전략 구축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새만금 단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이를 위해 대학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해은 기자